

《靈樞·本神》편을 통해 본 정신 기능의 발생과 층차에 대한 고찰

¹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교수 · ²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대학원생
³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대학원생
정창현^{1*} · 위보영² · 추면³

A Study on the Generation and Hierachy of Mental Functions in the 《Lingshu·Benshen》

Jeong Chang-hyun^{1*} · Wie Bo-young² · Zou Mian³

¹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²Graduate Student at 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³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tudent at 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We analyzed the descriptions of Doek(德)·Qi(氣)·Saeng(生)·Jeong(精)·Sin(神)·Hon(魂)·Baek(魄)·Sim(心)·Ui(意)·Ji(志)·Sa(思)·Ji(智)·Ryeo(慮)·Ji(智) which are the concepts mentioned in the beginning of the 《Lingshu·Benshen》.

Methods : We reinterpreted this verse in 《Lingshu·Benshen》 from the viewpoint of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mental function and considered it in relation to the knowledge of modern psychology and brain science.

Results & Conclusions : The reproductive essence of the parents are combined, primitive essence (元精) is created and simultaneously primitive spirit is born. Primitive spirit first differentiates into Hon and Baek. Hon and Baek are instinctive mental functions. Up to this point, because the process is completed before birth, primitive spirit, Hon, and Baek are innate spirit. Ui, Ji, Sa, Ryeo and Ji are the rational thinking abilities as mental functions that develop actively after birth. This is called conscious spirit and acquired spirit. Analyzing the contents of <Benshen>, it can be said that the mental function is divided into four layers of primitive spirit-Baek-Hon-conscious spirit.

Key words : 《Lingshu·Benshen》, primitive spirit(元神), conscious spirit(識神), Hon(魂), Baek(魄)

* Corresponding author : Jeong Cha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37 E-mail : jeongch@khu.ac.kr

Received(January 30, 2020), Revised(February 7, 2020), Accepted(February 7,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뇌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정신에 대한 연구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한 치매, 파킨슨병 등 뇌인성 병변이 증가하고, 약물의 오남용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각종 정신 질환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간의 정신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靈樞·本神>>은 내경 162편 중에서 정신의 생리, 병리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편으로, 내경 시대의 의학자들이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고대 정신관 또는 정신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최소한 한번쯤은 이 편の内容을 접하게 된다. 특히 이 편의 서두에 나오는 德·氣·生·精·神·魂·魄·心·意·志·思·智·慮 등에 대한 기술은 생명의 유래와 함께 각 정신 기능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로 매우 중시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 편에 대해서는 김성훈 등의 “<<靈樞·本神篇>>의 精神·魂·魄·心·意·志·思·慮·智에 대한 개념 고찰”¹⁾, 안진희 등의 “<<靈樞·本神>>에 대한 小考”²⁾, 정인철 등의 “<<靈樞·本神>>에 나타난 情志變化와 神志傷에 대한 고찰”³⁾ 등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사고의 전개과정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필자는 이 부분의 문장이 정신기능의 발생 또는 발달 과정을 기술한 것이라고 보았다. 예컨대, <<靈樞·經脈>>편에서 서두에 신체의 형성 과정을 精-腦髓-骨-脈-筋-肉-皮毛의 순서로 설명한 것처럼⁴⁾, <<靈樞·本神>>의 서두에서는 인체 정신기능의

발생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靈樞·本神>>의 해당 문장을 정신기능의 진화, 발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현대의 심리학 및 뇌과학 지식과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2. 생명의 유래

“天之在我者德也，地之在我者氣也，德流氣薄而生者也。故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隨神往來者謂之魂，並精而出入者謂之魄，所以任物者謂之心，心有所憶謂之意，意之所存謂之志，因志而存變謂之思，因思而遠慕謂之慮，因慮而處物謂之智。(하늘이 나에게 있는 것은 덕이요, 땅이 나에게 있는 것은 기이니 덕이 흐르고 기가 뭉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내원을 精이라 하고, 두 精이 서로 만나 뭉친 것을 神이라 하고, 神을 따라 왕래하는 것을 魂이라 하고, 精과 함께하며 출입하는 것을 魄이라 하고, 사물을 마주하는 것을 心이라 하고, 心에 깊이 생각한 바를 두는 것을 意라 하고, 意가 보존되는 것을 志라 하고, 志에 근거하여 변화를 두는 것을 思라고 하며, 思에 근거하여 멀리까지 추리하는 것을 慮라 하고, 慮에 근거하여 만물에 대처하는 것을 智라고 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생명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즉 최초에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天之在我者德也”라, 하늘이 나에게 있는 것이 德이라는 말은 곧 하늘이 나에게 德을 부여했다는 말이다. “地之在我者氣也”라, 땅이 나에게 氣를 부여했다는 말이다. 德은 稟性, 品格을 말하며 氣는 신체를 구성하는 재료를 가리킨다. 내경에서의 氣는 우주의 근원이며 만물의 근원이다. 즉 우주 만물을 모두 기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본다. 당연히 사람도 역시 기가 모여 생긴 존재이다. “天地合氣，六節分而萬物化生矣.”(<<素問·至真要大論>>), “氣合而有形”(<<素問·六節藏象論>>), “人以天地之氣生”(<<素問·寶命全形論>>), “天地合氣，命之曰人.”(<<素問·寶命全形論>>) 등의 문장에 그러한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기가 모여 形이 되는 것이니 곧 기는 만물의 재료인 것이다. 재료인 기가 모여 形을 이룰 때 어떤 形을

1) 김성훈, 류영수, 류희영. <<靈樞·本神篇>>의 精神·魂·魄·心·意·志·思·慮·智에 대한 개념 고찰.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1994. 5(1)
2) 안진희, 장우창, 백우상, 정창현. <<靈樞·本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회전학회지. 2015. 28(1)
3) 정인철, 이상룡. <<靈樞·本神>>에 나타난 情志變化와 神志傷에 대한 고찰.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1999. 10(2)
4) “人始生，先成精，精成而腦髓生，骨爲幹，脈爲營，筋爲剛，肉爲牆，皮膚堅而毛髮長，穀入於胃，脈道以通，血氣乃行.”(<<靈樞·經脈>>)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을 이 편에서는 德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덕은 재료인 氣가 모여 形을 만들 때 어떤 존재, 어떤 모습,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초목이 될 것인지, 동물이 될 것인지, 인간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또 무슨 풀, 무슨 나무가 될지, 새가 될지 곰이 될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德을 稟性, 品格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도 “사람은 비록 땅에서 태어나지만 命은 하늘에 달려 있다.(人生於地, 縣命於天)”라고 하였으니, 德은 또한 天命의 의미가 있다.

“德流氣薄而生者也”라, 최초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덕이 흐른다(德流)’는 것은 天命 즉 稟性이 부여되는 것으로 요즘 개념으로는 정보, 신호가 주어지는 것이다. 일종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로 충만한 허공에 신호가 주어지면 그에 따라 재료인 기가 뭉쳐서(氣薄) 각각의 形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다. “德流氣薄而生者也”는 이 과정을 설명한 말이다. 이 구절은 전후 문장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德流而氣薄者生也”라고 보면 보다 매끄럽다. 氣로 가득 차있는 무한한 공간에 德이라는 정보가 주어지고 그 정보대로 氣가 뭉친 것이 생명인 것이다.

天地를 父母로 치환하면 나라는 존재는 父와 母의 精氣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반드시 父의 정자와 母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로 결합해야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3. 精神의 생성

내경에서는 생명이 형성될 때 가장 먼저 精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生之來謂之精”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靈樞·經脈》에서도 “人始生, 先成精”이라고 하였다. <金匱真言論>의 “精者身之本也”도 같은 말이다. 이것이 先天之精인데, 道家에서는 이를 元精이라고 한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순간의 수정란이 이에 해당한다.

“兩精相搏謂之神”이라, “兩精”은 父母의 精 즉

生殖之精을 말하니 요즘 개념으로 보면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神을 형성한다는 말이다. 神은 생명의 정체성이니 앞에서 말한 德과 같은 개념이다. 이것은 先天之神이며, 도가에서는 이를 元神이라고 부른다. 하늘이 부여한 품격, 품성(德)이 나에게 들어와 나라고 하는 정체성(神)으로 작용하며, 나의 모든 생명활동을 주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精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神이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靈樞·決氣》에서는 “두 神이 서로 만나 합하여 形을 이루는데, 언제나 몸보다 먼저 생기는 것을 精이라고 한다.(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라고 하여, 神이 精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일견 <本神>편과 <決氣>편, 두 편의 기술이 서로 상충되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음미해보면 생명 탄생 순간에 대한 고대인의 심오한 고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⁵⁾ 부연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생명체에 있어서 精과 神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5)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pp.49-50

“<本神>편과 <決氣>편의 내용이 언뜻 보기에 서로 정반대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의 탄생을 精과 神의 두 측면으로 구별하여 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陰이 陽을 생하고 陽이 陰을 생하듯이, 神과 精 또한 相互資生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두 편의 내용이 하나로 합치될 수 있다. 예컨대, 부모의 精이 상합할 때 그 精에는 이미 神이 깃들어 있는 것이므로, 精뿐 아니라 그 안에 깃들어 있는 神도 동시에 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之來謂之精”이라 할 때의 精에는 이미 神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즉 精에는 생명의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決氣>편에 나오는 “常先身生是謂精”에서 말하는 精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神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부모의 兩神과 兩精이 결합해서 생명의 씨앗인 先天의 精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이미 神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兩神이 합하여서 精을 만들고, 부모의 兩精이 모여서 神을 만든다는 말이다. 다시 여기서 생명의 씨앗 중의 精, 즉 先天의 精으로부터 腦髓, 骨, 肉, 筋, 皮毛, 經脈, 藏府 등의 형체가 만들어지고, 생명의 씨앗에 깃들어 있는 神으로부터 魂, 魄, 心, 意, 志, 思, 智, 慮 등의 정신작용이 발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神과 精사이에 陰이 陽을 생하고 陽이 陰을 생하는 相互資生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로 精이라고 부르는 순간에는 이미 神이 깃들어 있는 것이어서 부모의 生殖之精이 서로 결합하는 순간에 그 안에 깃들어 있는 神 역시 서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先天之精 즉 元精이 만들어지는 찰나에 나의 元神 역시 생성되는 것이다. 정자와 난자에 각각 핵이 있는데, 이 핵에는 부모가 새로운 생명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모든 정보(神)가 담겨있다. 이것이 바로 새로 탄생하는 생명의 元神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명 탄생의 시초에서는 반드시 먼저 精이 생기며, 그와 동시에 神도 생긴다. 이것을 先天之精, 先天之神이라 하며 또 元精, 元神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생명탄생의 씨앗이 된다.

4. 先天之神과 後天之神

1) 先天之神

元精과 元神은 각각 새 생명의 형체와 정신의 근원이 되어 상호 긴밀하게 작용하여 생명체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한다. 즉 온전한 形神合一體를 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元神은 元精이 분화하여 형체를 구성하는 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일을 한다. 발생학적으로 수정란이 분화하면서 각 신체 조직 기관으로 발달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元精이 분화함에 따라 元神도 분화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魂과 魄으로 분화한다. 이것을 “隨神往來者謂之魂, 並精而出入者謂之魄”이라고 표현하였다.

魂魄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⁶⁾ 張介賓은 魂魄을 음양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그는 “陽神을 魂이라 하고 陰神을 魄이라고 한다.”⁷⁾라고 하여, 魂과 魄은 모두 神의 일종인데, 魄은 陰神이며 魂은 陽神이라고 했다. 즉 魂魄을 神이 발현될 때의 陰적인 속성과 陽적인 속성으로 인식한 것이다.⁸⁾ 張介賓은 또 “魂之爲言, 如夢寐

恍惚變幻遊行之境”, “魄之爲用, 能動能作, 痛痒由之而覺也”, “初生時耳目心識, 手足運動, 此魄之靈也.”⁹⁾라고 하고, 魂魄의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혼백을 차원이 다른 정신기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孔穎達은 《春秋左氏傳》昭公7年の正義의 주에서 “혼백은 신령의 이름이다. ……형체에 붙은 靈을 魄이라 하고, 氣에 붙은 神을 魂이라 한다. 형에 붙은 靈이란 것 태어났을 때, 눈과 귀, 心識, 손과 발의 운동, 보채고 부르는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魄의 靈이다. 氣에 붙은 神이란 정신, 性識이 점차 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氣에 붙은 神이다.(魂魄, 神靈之名, ……附形之靈爲魄, 附氣之神爲魂也. 附形之靈者, 謂初生之時, 耳目心識, 手足運動, 啼呼爲聲, 此則魄之靈也. 附氣之神者, 謂精神性識, 漸有所知, 此則附氣之神也.)”¹⁰⁾라고 하여 혼백은 모두 정신 기능이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 차별을 두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신체의 감각 및 인지, 운동 등과 관련된 낮은 단계의 정신 기능을 魄이라 하고, 태어난 후에 점차 알아가는 사유, 학습 등의 비교적 높은 단계의 정신 기능을 魂이라고 보았다. 가노우 요시미즈는 공영달의 설명에 근거하여 魂은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靈, 태어난 뒤에 길러진 의식사유며, 魄은 육체에 붙어 있는 靈, 탄생과 함께 유래하는 본능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¹¹⁾ 이들은 대체로 魄을 선천적인 것이고, 魂을 후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8) 정창현, 《黃帝內經》의 精神觀,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ol.10, 1997. p.5

9)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64

10) “人之生也, 始變化爲形, 形之靈者, 名之曰魄也. 既生魄矣, 魄內自有陽氣. 氣之神者, 名之曰魂也. 魂魄, 神靈之名. 本從形氣而有, 形氣既殊, 魂魄亦異. 附形之靈爲魄, 附氣之神爲魂也. 附形之靈者, 謂初生之時, 耳目心識, 手足運動, 啼呼爲聲, 此則魄之靈也. 附氣之神者, 謂精神性識, 漸有所知, 此則附氣之神也. 是魄在於前, 而魂在於後, 故曰既生魄, 陽曰魂. 魂魄雖俱是性靈, 但魄識少而魂識多.”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cited. 2019. 27. January] Available from:

URL: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124691)

11)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p.40

가노우 요시미즈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철학분과 옮김, 《중국의학과 철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13

6)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p.39

7)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65

“惟是神之爲義有二. 分言之則陽神曰魂, 陰神曰魄”

필자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魂魄은 元神이 1차적으로 분화 발달하여, 形과 神을 각각 주관하는 정신 기능으로 둘 다 본능적인 생명활동을 주관하는 정신 기능이다. 즉 선천적인 것이다. 다만, 魂은 魄에 비해 상대적으로 陽에 속하며 또 氣에 붙은 神으로 주로 오관을 통한 인지, 지각 기능이나 手足 등의 수의적인 운동기능, 기본적인 감정 인지 등을 담당한다. 魄은 魂에 비해 상대적으로 陰에 속하며 形에 붙은 靈이라 하였으니, 주로 불수의적인 운동이나 본능적인 감각기능을 수행한다.¹²⁾ 즉 사유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단계의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정신 기능이 魂魄인 것이다. 魂은 심장 박동이나 폐의 호흡, 위장관의 소화, 흡수, 배설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주관하며 이는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한다. 魄은 이목구비를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며, 본능적인 판단에 따라 신체를 움직이는 등의 기능을 주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魂魄은 元神과 함께 넓은 의미의 先天之神에 속한다.

2) 後天之神

“心有所憶謂之意，意之所存謂之志，因志而存變謂之思，因思而遠慕謂之慮，因慮而處物謂之智。” 이 구절은 後天之神을 설명한 것이다. “所以任物者 謂之心”이라. 외부의 사물을 마주하는 주체를 心이라고 하는데, 곧 心神을 가리킨 것이며, 이것이 사유활동의 시작이다. 心이 마주한 외부 사물이 기록되고 새겨져 남게 되는 印象의 과정이 意이다. 心은 매순간 이목구비를 통해 수많은 정보와 마주하지만 그것이 모두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다. 心이 그것을 특별히 인지해야 비로소 기억에 남게 된다. 이러한 인지 능력이 意이고, 意를 통해 반복적으로 얻은 정보를 축적하여 오래도록 보존하는 능력 즉 기억 작용이 志이다. 기억을 바탕으로 사유하는 기능이 思이다. 일종의 개념이 형성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思를 바탕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慮이다. 창의력, 창조력은 여기에서 나

온다. 慮를 바탕으로 외계의 사물 즉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이 智이다. 창조적 실천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心부터 意-志-思-慮-智까지는 모두 인간의 사유 과정이자 사유 기능이 진화해가는 과정을 말한 것으로, 출생 후에 주로 발달하는 정신 기능이므로 精, 神, 魂, 魄에 비해서 후천에 속한다. 그래서 이를 後天之神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후천의 정신활동은 외계의 사물을 마주하는 능력인 心神으로부터 분화, 발달한 것이다. 따라서 意-志-思-慮-智 등 후천의 정신활동은 모두 心神으로 개괄할 수 있다. 도가에서는 이 후천의 사유 능력을 識神이라고도 부른다.

종합해보면, 心을 기준으로 앞에 나오는 精-神-魂-魄은 先天에 해당하고, 뒤에 나오는 意-志-思-慮-智는 後天에 해당한다. 공교롭게 先天에 해당하는 精神魂魄이 발생하는 순서를 보면 水-火-木-金, 1-2-3-4의 생성수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心 이후 意-志-思-慮-智는 모두 5(土)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¹³⁾

先天之神은 출생 전에 생성, 발달한 것으로 태아기의 생명활동을 주관하여 오장육부와 경락 등 신체 조직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기능하도록 조절하고 통제한다. 後天之神은 출생 후에 외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인지, 기억, 학습, 사유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로부터 元神이 뇌에 있고, 識神이 心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선천과 후천으로 구분한 것과 연관지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神의 발달단계와 뇌의 3중구조

元精과 元神은 생명의 근원이자 씨앗이고, 혼백

13) 이는 신체 발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靈樞·經脈》편에서 “人始生，先成精，精成而腦髓生，骨爲幹，脈爲營，筋爲剛，肉爲牆，皮膚堅而毛髮長，穀入於胃，脈道以通，血氣乃行。”이라 하여, 선천의 단계에서 精과 腦髓가 형성된 이후 骨-脈-筋-肉-皮毛의 순서로 발생하고, 출생 이후 水穀이 胃로 들어간 다음에 비로소 脈道를 통해 營衛氣血이 운행하면서 후천의 자발적인 생명활동이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오행 生成數의 순서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정창현. 《黃帝內經》의 精神觀. 대한원전사학회지 1997. V10, p.7

은 여기에서 진화하고 발달한 것으로 본능적인 정신 기능이며, 心神으로 비롯되는 意, 志, 思, 慮, 智 등의 識神은 후천의 사유 기능이다. 魂魄은 다시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魄은 형체의 본능적인 감각기능이나 不隨意運動 등을 주관하고, 魂은 手足이나 耳目口鼻 등의 隨意的인 운동, 꿈, 감정, 느낌 등을 주관하고, 意志등은 보다 수준 높은 사유, 분석, 판단 등을 주관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魄은 體性本能, 魂은 感性本能, 意志등은 이성적 사유능력이라 할 수 있다.¹⁴⁾

元精에 깃들어 있는 元神은 생명의 근원, 씨앗으로 우주의 근본원리와의 통해 있는 드러나지 않는 생명의 주체이며, 魂魄은 元神이 생명을 주관하는 가운데 정신과 육체 두 방향으로 분화한 본능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정신 기능은 출생 전에 완성된다. 반면에 意志 등의 識神은 출생 이후 진화하고 발달하는 정신 기능으로 인간의 인식, 사유, 판단, 감정 등의 수준 높은 정신작용을 말한다.

<본신>편에 근거해보면, 정신의 진화 단계를 ‘생명의 근원인 元神’→‘체성본능인 魄’→‘감성 본능인 魂’→‘이성적 사유능력인 識神(意志思慮智)’,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을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한 예는 과거 동서양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고대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이 살아있게 하는 원리로서 영혼(psyche; soul, spirit)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생물계에는 세 가지 영혼, 즉 식물적 영혼vegetative soul, 동물적 영혼animate soul, 그리고 이성적 영혼rational soul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중 식물적 영혼은 살아 있게 하는 일이 전부여서 영양을 섭취하고 생식을 통하여 자손을 퍼뜨리게 하는 생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¹⁵⁾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계와 무생물적 자연계를 구분하는 경계로서 이 식물적 영혼의 존재 여부를 들었다. 한편, 동물적 영

혼은 영양, 성장 및 생식의 기능을 지닐 뿐만 아니라 운동과 감각의 기능도 함께 지니게 하여 식물적 영혼보다 한 단계 상위에 속하는 영혼이어서, 이것을 지닌 생물로는 동물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인간만이 지닌 이성적 영혼은 식물 및 동물적 영혼의 활동에 더하여,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하여 인간 고유의 이성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하였다.¹⁶⁾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식물적 영혼은 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물적 영혼은 魂에 해당하는 것이며, 志意 등은 이성적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전국시대의 <<荀子>>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荀子·王制>>에 “水火有氣而無生, 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義, 人有氣有生有知, 亦且有義, 故最爲天下貴矣.”¹⁸⁾라고 하여, 만물을 水火, 草木, 禽獸, 人間으로 구분하였다. 水火는 비생명체이며, 草木, 禽獸, 人間은 생명체이다. 水火 등의 비생명체는 기가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자체에 생명력은 없다. 적어도 초목 이상에서 비로소 생명력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有生’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초목은 외물을 인지하고 스스로 움직이거나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능력은 동물의 단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이것을 ‘有知’라고 했다. 인간은 여기에 義가 더 추가된다. 즉 義가 있다는 것은 사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앞에서 언급한 魂魄志意와 비교하면 生은 魄에 해당하고, 知는 魂에 해당하고, 義는 志意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¹⁹⁾

최근 각광받고 있는 뇌과학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Paul D. McLean 박사는 Triune brain(삼중 뇌이론, 삼위일체뇌)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뇌

14)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pp.39-40

15) 이인규, 진화의 소산으로서의 인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대우학술총서·공동연구. 서울. 민음사. 1991. pp.93-94

16) 이인규, 진화의 소산으로서의 인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대우학술총서·공동연구. 서울. 민음사. 1991. pp.93-94

17)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p.61

18) 漢文大系 15. 荀子. 東京, 富山房發行. 1984. 增補版第二刷. pp.20

19)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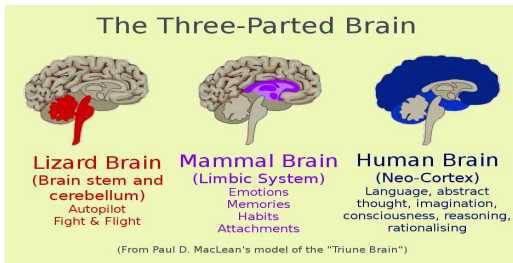


그림 1. 폴맥린의 3중뇌 가설
(<https://quillette.com/2018/08/27/taming-the-lizard-brain>)

구조를 설명한 이론이다.²⁰⁾

발달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발달하는 파충류의 뇌(뇌간, 소뇌, 기저핵 등)는 인간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뇌이다. 호흡, 심박동, 저작, 본능적인 행동 등을 담당하므로 생존의 뇌, 생명유지의 뇌라고도 한다.²¹⁾ 다음으로는 포유류의 뇌가 발달하는데 Limbic system 부분이며 편도, 시상하부, 해마로 구성된 변연계 부분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동기,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²²⁾ 그래서 동물의 뇌, 감정의 뇌라고도 한다. 이 영역의 뇌는 파충류의 뇌와 인간의 뇌 사이에서 연결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인 신피질 부분이다. 대뇌 피질영역을 의미하는데, 이성적인 사고, 언어, 고차원적 인지, 계획하는 능력 등 고등 포유류에게 있는 뇌 구조이다.²³⁾ 이 이론을 魂魄志意와 비교하면 파충류의 뇌는 그 기능이 魄의 기능과 유사하고, 포유류의 뇌가 하는 일은 魂이 하는 일과 유사하며, 인간의 뇌는 그 기능이 志意와 비슷

하다.

인간의 의식을 여러 층차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의 정신을 빙산에 비유하여 의식-전의식-무의식 3단계로 구분하였고, 분석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의식(자아)-개인무의식-집단무의식-자기(원형)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의식의 증차는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생각하고 알고 기억하는 모든 것으로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융은 무의식을 집단무의식과 개인무의식으로 구분하였다. 집단무의식은 오랜 세월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인류 공통의 정신 기능으로 체험하지 않아도 아는 선형적인 본능이다. 개인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지만 표면화되지 않은 의식세계로 경험적 본능이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의식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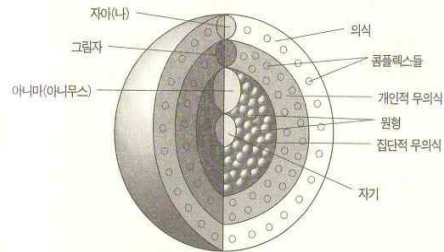


그림 2. 융의 정신 모형
(http://m.blog.daum.net/windada11/8768979?np_nil_b=2)

비록 융의 이러한 분석이 <본신>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신의 층차를 구분한 점에

20) Wikipedia. Triune brain. Wikimedia Foundation, Inc. 2020[cited 2020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s://en.wikipedia.org/wiki/Triune_brain

21) Tistory. All about Development. 2016[cited 2020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s://gooddevelopment.tistory.com/20>

22) Tistory. All about Development. 2016[cited 2020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s://gooddevelopment.tistory.com/20>

23) Tistory. All about Development. 2016[cited 2020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s://gooddevelopment.tistory.com/20>

24) 네이버 블로그. 2007[cited 2020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s://xbanya.blog.me/10016160863>

네이버 블로그. 2019[cited 2020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s://blog.naver.com/sioul07/221519213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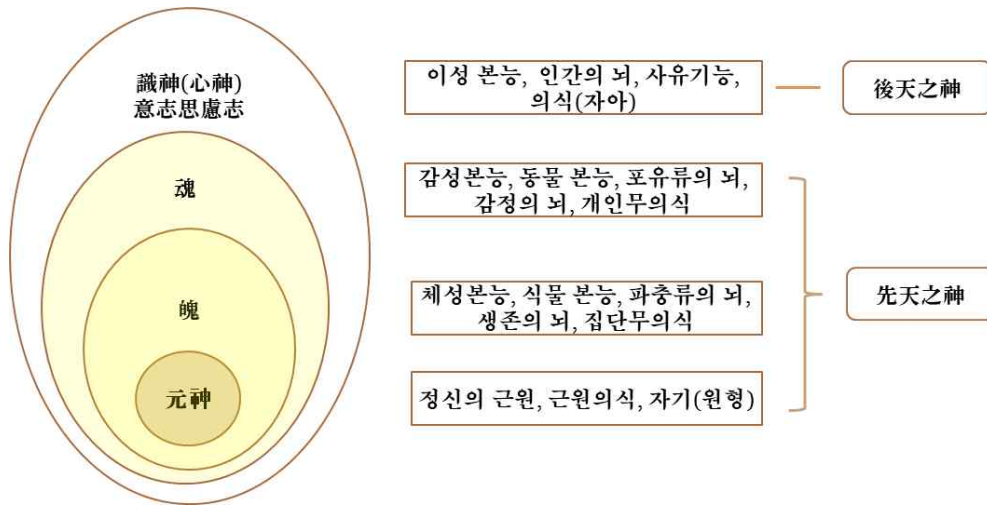


그림 3. 의식의 층차와 구조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유사한 점도 있다. 예컨대, 자기(원형) 개념은 元神에 가깝고, 무의식은 魂魄과 비슷하고, 의식(자아)은 意志思慮志와 비슷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서고금에 걸쳐 여러 학자들이 끊임없이 정신의 발생과 구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신이 여러 층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6. 결론

지금까지 <<靈樞·本神>>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 기능의 발생과정과 정신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모의 生殖之精이 결합하여 元精이 생성되고 그 순간 동시에 元神도 생겨난다. 이 元精과 元神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새 생명의 육체와 정신으로 분화 발달하게 된다. 元神은 먼저 魂魄으로 분화하는데 魂魄은 본능적인 정신 기능으로 魄은 체성 본능이며 魂은 감성 본능이라고 개괄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출생 전에 태아기에 완성되는 과정이므로 元神과 魂魄은 先天之神이다. 意, 志, 思, 慮, 智는 출생 후

이 외계의 사물과 마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발달하는 정신 기능으로 이성적인 사유능력이다. 이것을 識神이라고 하고 또 後天之神이라고 한다.

<本神>편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신 기능을 元神-魄-魂-識神의 네 층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元神은 그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정신의 근원으로 魂魄, 識神의 생성 및 기능 활동의 원천이다. 魄은 형체와 관련된 정신 기능으로 호흡, 심박동, 체온유지, 불수의 운동 등 생명을 유지하는 체성본능이다. 이것은 식물본능, 식물영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뇌의 발달 과정상으로는 뇌간을 중심으로 한 파충류의 뇌 기능과 관련된다. 魂은 耳目口鼻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꿈을 꾸고 감정을 느끼며 자율적인 운동을 주관하는 정신 기능으로 감성본능이다. 이것은 동물본능, 동물영혼 개념과 유사하고 뇌의 발달 과정상으로는 뇌간에 구피질을 포함한 변연계가 더해진 포유류의 뇌 단계이다. 意, 志, 思, 慮, 智 등의 識神은 인간의 고도의 사유기능으로 이성본능이다. 이것은 뇌의 발달 과정상으로 앞의 포유류의 뇌에 대뇌피질(신피질)이 더해진 단계이다.

<本神>편의 내용은 동서를 통틀어 최초로 인간의 정신을 분석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수천년 전에 정신의 발달과 구조에 대해 이토록 정밀하게 분

석했다든 점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이러한 先人の 업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실에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기능의 각 증차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 및 치료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1. 가노우 요시미즈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기 철학분과 옮김. 《중국의학과 철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2.
2. 이인규. 진화의 소산으로서의 인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대우학술총서·공동연구. 서울. 민음사. 1991.
3.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6.
4.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5. 정창현. 《黃帝內經》의 精神觀.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7. 10.
6. 漢文大系 15. 荀子. 동경. 富山房. 增補版第二刷. 1984.
7.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8.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주.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9. quillette.com. Quillette Pty Ltd 2019[cited. 2019.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https://quillette.com/2018/08/27/ taming-the-lizard-brain
10. Tistory. All about Development. 2016.[cited 2020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https://gooddevelopment.tistory.com/20
11. Wikipedia. Triune brain. Wikimedia Foundation, Inc. 2020.[cited 2020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s://en.wikipedia.org/wiki/Triune_brain
12. 네이버 블로그. NAVER Corp. 2007[cited 2020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s://xbanya.blog.me/10016160863
13. 네이버 블로그. NAVER Corp. 2019[cited 2020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s://blog.naver.com/sioul07/221519213428
14. 다음 블로그. Kakao Corp. 2016[cited 2020 25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blog.daum.net/windada11/8768979?np_nil_b=2
15.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cited 2019 27 January] ; Available from: URL: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124691